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re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일시	2024. 10. 29.(화) 08:00	총 6쪽(붙임 3쪽 포함)			
배포일시	2024. 10. 29.(화) 08:00	담당기관	주영한국문화원		

주영한국문화원 제19회 런던한국영화제 개막작 '빅토리' 선정
 - 영국영화협회(BFI) 협력 대규모 기획전 12월 프로그램 공개



주영한국문화원(원장 선승혜/이하 문화원)은 올해 19회를 맞이해 오는 11월 1일부터 13일까지 개최하는 런던한국영화제(London Korean Film Festival)의 개막작을 공개했다. 개막작은 박범수 감독의 '빅토리'가 선정되었다.

올해 런던한국영화제의 개막작은 영국의 영화 최대 기관인 영국영화협회 (BFI, British Film Institute)와 주영한국문화원, 한국영상자료원이 협력해 진행하는 <시간의 메아리: 한국영화의 황금기와 뉴 시네마(Echoes in Time: Korean Films of the Golden Age and New Cinema)> 기획전의 일환으로 영국 런던 BFI 사우스뱅크 (BFI Southbank) 극장에서 진행된다.

선승혜 주영한국문화원장은 “영국영화협회와 협력으로 런던에서 한국영화를 대대적으로 조망하는 대규모 기획전을 시작합니다. 이와 동시에 진행되는 런던한국영

화제는 개막작으로 선정된 빅토리로 새로운 미래의 영화를 활짝 열어봅니다. 런던에서 20세기 한국의 압축성장과 함께 한 한국영화를 감상하면서, 한국미학의 역사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의 영화마다 이루어낸 미적 성취는 크고 작은 승리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영화는 창의적 재능의 특이점을 가진 사람들의 거침없는 열정을 새로운 미학을 만들어 냈습니다. ”라고 행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영화 '빅토리'는 1984년 거제도 섬마을의 치어팀 모티브로 시대를 변경해 제작했으며 춤만이 인생의 전부인 필선(이혜리)과 미나(박세환)가 치어리딩을 통해 모두를 응원하고 응원받게 되는 이야기다. 제23회 뉴욕아시아영화제(New York Asian Film Festival) 개막작으로 공식 초청되기도 했다. 개막식에는 박범수 감독이 직접 참석해 영화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로 영국 관객들과 직접 만날 예정이다.

<시간의 메아리: 한국영화의 황금기와 뉴 시네마(Echoes in Time: Korean Films of the Golden Age and New Cinema)>는 영국의 영화 최대 기관인 영국영화협회 (BFI, British Film Institute)와 주영한국문화원, 한국영상자료원이 협력해 진행하는 대규모 한국영화 기획전으로 10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오는 10월 28일에 '여관사(1962) 상영을 시작으로 1960년대의 황금기에서 유현목 감독의 네오리얼리즘 명작 '오발탄' 등 13편, 한국 영화의 새로운 물결인 뉴 코리안 시네마(1996년~2003년) 시기에서 정재은 감독의 청춘영화 '고양이를 부탁해' 등 17편, 애니메이션 1편 등 31편과 최신작, 여성감독 11편 총 42편을 70회 이상 상영하는 대규모 기획전으로 진행한다.

추가로 공개하는 12월 프로그램에는 1960년대 황금기 작품인 '마부'(1961),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1961), '고려장'(1963), '마의 계단'(1964), '살인마'(1965), '갯마을'(1965)과 한국 영화의 새로운 물결인 뉴 코리안 시네마(1996년~2003년) 시기의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1996), '8월의 크리스마스'(1998), '조용한 가족'(1998), '여고괴담 두번째 이야기'(1999), '박하사탕'(1999), '플란다스의 개'(2000),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2000), '반칙왕'(2000), '울드보이'(2003), '스캔들: 조선남녀상열지사'(2003) 등으로 영국 런던 BFI 사우스뱅크 (BFI Southbank) 극장에서 상영될 예정이

다.

영화 상영과 더불어 다양한 부대행사도 예정되어 있다. 샌프란시스코 주립대(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의 스티브 최(Steve Choe) 교수가 참석해 1960년대와 1990년대의 한국 경제와 정치의 변화에 따라 한국 영화가 어떻게 급격한 변화를 겪었는지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킹스칼리지 런던(King's College London)의 최진희 교수는 한국 영화에서 소녀를 그려내는 방식에 대해 토크를 가질 예정이며, 일부 상영의 경우 상영 전 전문가가 참석해 영화를 소개할 예정이다.

붙임1

‘시간의 메아리: 한국영화의 황금기와 뉴 시네마’ 개요

□ 행사 개요

- 행사명 : 영국영화협회(BFI) 기획전 - 시간의 메아리: 한국영화의 황금기와 뉴시네마 (Echoes in Time: Korean Films of the Golden Age and New Cinema)
- 일시 : 2024년 10월 28일(월) ~ 12월 31일(화)
- 장소 : 런던 BFI 사우스뱅크 극장
- 주최 : 영국영화협회 (BFI, British Film Institute)
- 협력 : 주영한국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 프로그램 : <1960년대: 황금기>, <1990-2000년대: 뉴 시네마>, <가족> 등 42편의 한국영화
- 부대행사 : <관객과의 대화>, <토크 행사> 등 부대행사 계획

붙임2

‘제19회 런던한국영화제’ 개요

□ 행사 개요

- 행사명 : 제19회 런던한국영화제 (London Korean Film Festival 2024)
- 일시 : 2024년 11월 1일(금) ~ 11월 13일(수)
- 장소 : 런던 BFI 사우스뱅크 극장 및 ICA, 씨네 루미에르 극장
- 주최 : 주영한국문화원
- 후원 : 영화진흥위원회
- 프로그램 : <개·폐막전>, <2023-24년 화제작: 시네마 나우>, <여성 영화>, <스페셜 스크리닝> 등
- 부대행사 : <관객과의 대화>, <포럼> 등 부대행사 계획

붙임3

‘시간의 메아리: 한국영화의 황금기와 뉴 시네마’ 상영작
리스트

부문	상영작 (감독)
1960년대	하녀 (김기영)
	오발탄 (유현목)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신상옥)
	여관사 (홍은원)
	고려장 (김기영)
	돌아오지 않는 해병 (이만희)
	마의 계단 (이만희)
	춘몽 (유현목)
	살인마 (이용민)
	갯마을 (김수용)
	워커힐에서 만납시다 (한형모)
	안개 (김수용)
	황혼의 검객 (정창화)
	1990-2000년대
접속 (장윤현)	
8월의 크리스마스 (허진호)	
조용한 가족 (김지운)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이명세)	
쉬리 (강제규)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김태용·민규동)	
박하사탕 (이창동)	
플란다스의 개 (봉준호)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류승완)	
반칙왕 (김지운)	
공동경비구역 JSA (박찬욱)	
고양이를 부탁해 (정재은)	
와이키키 브라더스 (임순례)	
올드보이 (박찬욱)	
지구를 지켜라 (장준환)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 (이재용)	
가족	호피와 차돌바위 (신동현)

붙임4

‘제19회 런던한국영화제’ 상영작 리스트

부문	상영작 (감독)	
개막작	빅토리 (박범수)	
폐막작	대도시의 사랑법 (이연희)	
시네마 나우 (Cinema Now)	그녀가 죽었다 (김세휘)	
	엄마의 왕국 (이상학)	
	세입자 (윤은경)	
	미망 (김태양)	
	301호 모텔 살인사건 (연제광)	
	백수아파트 (이루다)	
	장손 (오정민)	
	헨섬가이즈 (남동협)	
	여성 영화 (Women's Voices)	막걸리가 알려줄거야 (김다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김혜영)
딸에 대하여 (이미랑)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부지영)		
도회야 (정주리)		
모래바람 (박재민)		
비밀은 없다 (이경미)		
벌레 (명세진)		
이씨 가문의 형제들 (서정미)		
헨젤: 두 개의 교복치마 (임지선)		
순간이동 (권오연·남아름·탄자와·치푸미·노카·나나)		
스페셜 스크리닝 (Special Screening)	외계+인 2부 (최동훈)	